

**영산강환경유역청 민원도우미제**

영산강환경유역청은 "민원인에게 민원사안별로 도우미를 제공하는 "민원도우미제도"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민원도우미제도는 민원인이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원 스톱(One Stop)"지원체제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되며, 민원처리 과정이 홈페이지(<http://yeongsan.me.go.kr>)에 공개된다.

민원도우미 대상은 환경관리과의 폐기물처리업허가,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록과 자연환경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측정분석과의 측정대행업 등록 등 3개과 11개 업무가 해당된다.

**생태공학적담호수 건설과 환경보전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및 연구발표회개최**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0월 24일 공사 수자원교육원에서 환경 친화적인 수자원개발 및 관리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술단체, NGO와 공동으로 생태공학 적담호수 건설과 환경보전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고품위 탄산칼슘 상용화로 연 2억달러 수입대체**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鄭張變)은 국내 최대 부존비금속 자원인 석회석에서 고품위 경질탄산칼슘 생산 상용화 기술개발에 성공했으며, 지난 10월 16일 12시에 대전 유성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원장 이태섭)에서 鄭이사장 및李文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품위 경질탄산칼슘 생산 파일럿플랜트 준공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경질탄산칼슘은 제지, 고무, 플라스틱, 페인트, 식·의약품 및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의 충전제로 사용되며 국내 산업의 다양화 및 고급화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생산기술 이전 기피와 국내 기술개발

발 미흡으로 고품위 제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저품위 제품(시멘트, 철강용) 일부만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다.

**울산서 제24회 전국자연보호 세미나 열려**

자연보호중앙협의회 및 자연보호울산협의회 공동으로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동구 호텔현대 등에서 제24회 전국자연보호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명숙 환경부장관을 비롯, 이종훈 자연보호중앙협의회장, 강석구 자연보호 울산시협의회장, 박맹우 울산시장, 김철욱 울산시의회 의장 등 전국자연보호협의회 관계자 및 공무원 360여명이 참석했다.

**대전시, 대형폐기물 배출·수거체계 개선**

대전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대형 폐기물 배출시 지정업체 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지난 10월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고 수거대행업체 지정 등 구별 추진계획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방침이다.

**쓰레기 해결 공모전 당선작 선정**

서울시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래시 애니메이션 공모전 최우수작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사 애니멀이 출품한 '쓰레기의 제왕'을 선정했다고 지난 10월 13일 밝혔다.

'쓰레기의 제왕'은 쓰레기로 인한 문제와 해결책을 '테트리스' 게임방식으로 상징화한 작품이다.

모두 29편이 응모한 공모전에서는 또 우수상에 '하루의 추억'(조희재), 장려상에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도시'(류광범)와 '리싸이클 맨'(정병준), '리싸이클'(홍승민), '재활용이 바꾸는 미래의 모습'(최두영), '서울의 빛'(오영미) 등 5편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10월 21일 열렸으며, 수상작은 홍보용 CD로 제작해 시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 등의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지수송도로 관리 일원화

도로의 유지관리 주체가 각 행정구역별로 분리되어 있는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의 유지관리 개선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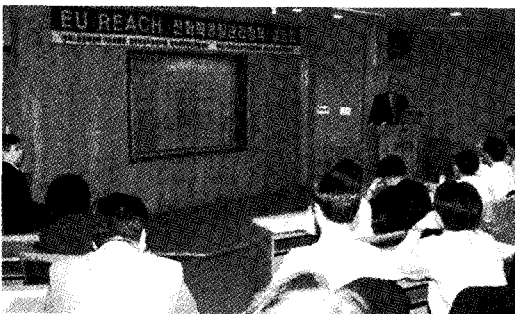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0월 13일 매립지 수송도로 13.6km에 대한 관리구간 분할 및 업무분담이 각 행정구역별로 분할 관리함으로써 예산의 과다소용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유관기관의 회의결과에 따라 업무분담을 변경하는 수송도로 관리협약서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인천대공원에 환경미래관 건립

인천시는 남동구 장수동소재 인천대공원에 환경종합공간인 환경미래관을 건립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총 45억원(부지매입비 제외)을 들여 2006년까지 지을 환경미래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환경전시관과 환경정보센터, 환경재활용관, 야외생태학습장으로 꾸며진다.

### EU의 新환경규제法 'REACH법안' 설명회 개최



미칠 EU의 새로운 환경규제인 '신화학물질관리법안(REACH)'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설명회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와 기술표준원 공동주체로 지난 10월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됐다.

REACH법안은 EU의회에서 최종 입안되어 폐가전 처리지침(WEEE), 폐차처리지침(ELV),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등 기존 환경규제보다 적용범위가 더 넓어 화학업계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자산업 등 모든 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골리앗급 환경규제로 불린다.

이번 REACH법안은 EU에 수입되는 1톤이상의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서 생산자와 수입자 모두 등록하고 안전성 평가 의무화를 기본으로 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정을 통해 수입규제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이번 법안은 한해 1조 2000억원의 화학물질을 EU에 수출하는 국내 수출업체가 EU의 기준을 못 맞출 경우 적잖은 경제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부 인사

#### ■ 과장급 전보(10.13)

환경기술과장 金學周 수질정책과장 白奎錫  
方義錫 대기관리과장 石錦秀 전주지방환경청장

#### ■ 4급 승진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 행정사무관 박재성,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 행정사무관 정복영 서기관에 임함(10.13 대통령령)

### 제7차 이산화탄소 활용 국제학회 개최

한국화학연구원(원장 김충섭)은 과학기술부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인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 기술개발사업단(단장 박상도)과 공동으로 지난 10월

12일에서 16일까지 서울대 호암관에서 '제7차 이산화탄소 활용 국제학회(7th ICCDU,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rbon Dioxide Utilization)'를 열었다.

대기중의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생기는 지구 온난화 및 지구상의 기상이변 문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1991년부터 격년제로 열리는 이 학회에는 올해 한국, 미국, 일본 등 18개국의 관련 석학들이 참가해 모두 137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 ‘늘푸른 에너지공학상’ 공모

한국에너지공학회(회장 최기런 교수)는 국내 에너지분야의 연구 및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올해 첫 제정된 늘푸른 에너지공학상 시상상을 위해 수상 후보자를 추천 받았다.

에너지분야에서 탁월한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실적이 있는 연구자나 기술개발자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소속 기관장 또는 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한국에너지공학회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 학술연구부문 개인이나 단체, 기술개발부문 개인이나 단체, 공로부문 개인 등 모두 3개부문 각 1명씩으로 10월 25일까지 접수했다.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장과 상패, 상금 각 700만원씩을 수여할 예정.

### 실버환경감시반활동 '눈에 띄네'

제주시 용담2동 12동의 '실버환경감시반'이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활동에 돌입한 실버환경감시반은 매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관내 일원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과 계도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구성원도 처음에는 김춘자씨(66) 등 2명이었지만, 현재는 7명에 이르는 등 실버환경감시반은 활동의 폭

을 넓혀가고 있다.

이처럼 실버환경감시반의 활동으로 단속지 일대에는 과거와 달리 쓰레기 불법 투기 사례가 줄어들었으며 규격봉투사용 역시 정착되고 있다.

### 고려대, 환경과 생명 심포지엄 개최

고려대학교는 지난 10월 17일 오전 9시 생명환경과 학대학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환경과 생명'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전문가 12명이 참석해 '도양오염의 생물학적 복원', '학문간 융합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 '생명과학기술을 이용한 환경오염 분석'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 제일모직, 빈폴 자연사랑 캠페인 개최

제일모직의 캐주얼 브랜드 빈폴은 지난 10월 18일 충주 월악산 국립공원에서 "빈폴 자연사랑 캠페인"을 개최했다.

올해로 4회를 맞는 자연사랑 캠페인은 빈폴의 브랜드 이념인 자연주의 철학을 실현하고 고객들에게 자연사랑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매년 주요 국립공원을 순회하면서 개최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 영광군 공무원 128명 쓰레기수거 현장체험

영광군은 지난 9월 26일부터 군산하 8급 이하 공무원 128명을 대상으로 환경미화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공무원 환경미화 현장체험은 지난 2001년 영광군 6급 이상 공무원 141명, 2002년에는 7급 공무원 1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에는 8급 이하 공무원 128명을 대상으로 10월 22일까지 계속됐다.

## 소각기술 교육세미나 개최

(사)한국소각기술협의회(회장 이승무) 주최로 지난 10월 17일(금) "소각시설 운전기술의 고도화와 여열 이용관리 효율화 교육세미나"가 경기중소기업중앙지원센터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5시까지 열렸다.

환경부 이성환 산업폐기물과장이 "사업장폐기물의 소각정책 및 향후방향", 국립환경연구원 정일록 폐기물연구부장은 "중·소형 소각로의 배출가스관리 및 다이옥신 저감방안", 환경관리공단 이구영 사업이사가 "소각시설에서의 민원해결사례"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가졌다.

## 올 겨울엔 강풍 조심

태풍 매미의 내습을 미리 경고, 관심을 끌었던 삼성 지구환경연구소가 이번에는 '올 겨울 강풍에 조심하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삼성지구환경연구소는 지난 10월 15일 '기상이변, 한국은 팬찮은가 2'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용오름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는 강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대순간풍속 기록의 1~4위가 2000년 이후 발생했고, 서울 부산 강릉 등 14개 도시 가운데 10개 도시의 최대순간풍속 최고치가 1990년 이후에 나타나는 등 최근 강풍의 위협이 점증하고 있다"며 "특히 인공지형이 많은 도시 지역에서는 돌풍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소는 8월 태풍 매미 내습 직전 '기상이변, 한국은 팬찮은가 1'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추석연휴에 태풍이 와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상정보보다 앞서서 경고, 화제를 모았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 매립 면허권 획득

환경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매립

면허권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이관돼 수도권 폐기물 처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0월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와 환경관리공단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매립권 중 환경공단 보유 매립 면허권을 수도권매립지공사로 위탁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공시출범 이후에도 매립면허권을 환경관리공단이 갖고 있어 매립지 토지 이용 결정시 운영위와 수도권 해안매립지 실무위로 이원화돼 업무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가수 이현우, 녹색연합 홍보대사로 위촉

녹색연합은 지난 10월 14일 가수 이현우씨를 녹색연합 야생동물보호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 무안군, 친환경 안내책자 발간

무안군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친환경 으뜸군으로 가는 길'이라는 안내책자를 제작했다.

최근 무안군에 따르면 환경에 대한 국민 인식을 새롭게 해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역량을 한데 모으기 위해 안내책자 1천800부를 제작, 읍·면 기관단체, 환경단체, 이장, 부녀회장 등에게 배부했다.

## 대한환경공학회, 제2회 사이버학술대회 안내

대한환경공학회(학회장 신항식)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명지대학교에서 제2회 사이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03년 추계학술대회와 연계한 것으로, 기존의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온라인화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연구자들간의 정보교류가 주로 전문학술지 및 전문 학술행사에서의 발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전문학술행사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제한된 시간내에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하

며, 또 여러 주제들을 동시에 여러 곳에서 발표를 하므로 연구정보 교류에 있어서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많아 이 같은 단점을 해소하고자 Web상에서 장을 마련했다고 학회측이 밝혔다.

### 국무총리상 받는 대청호 환경 파수꾼

20여년을 한결같이 대청호 환경 파수꾼 역할을 해온 어부 김기동(金基童, 52.충북 보은군 회남면 신곡리)씨가 자연보호에 기여한 공으로 국무총리상을 받는다.

1980년 대청댐이 들어선 뒤 정든 고향을 물 속에 묻은 김씨는 "향수"를 달래지 못해 "쓰레기 줍는 어부"를 자처하고 나섰다.

유년시절 동무들과 어울려 뛰놀던 금빛 백사장은 댐이 들어선 뒤 낚시 쓰레기와 상류에서 떠내려온 부유 쓰레기로 뒤덮이기 시작했고 보다 못한 그는 고기잡이를 하는 틈틈이 뱃전에 쓰레기를 건어 올려 물으로 실어냈다.

또 휴일이면 부인과 함께 갈퀴와 자루를 들고 호수 주변을 돌며 버려진 빈병과 플라스틱, 비닐 등을 긁어 모았다. 이렇게 모아진 쓰레기는 해마다 수백. 그의 선행을 전해들은 대청댐관리단은 1990년 김씨 부부를 "대청호 수질 감시원"으로 위촉했다.

### 환경 사랑 올해의 풀꽃상에 눈

수천년 간 이 땅의 사람들을 먹여 살려온 논(畓)이 상을 받는다.

지난 10월 7일 환경단체인 풀꽃세상(www.fulssi.or.kr)은 자연에 대한 존경심 회복을 위해 제정한 풀꽃상의 올해 수상자로 논을 선정했다.

풀꽃세상은 "논에는 농사일을 하면서 부르던 노래와 두레 등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도 뿌리내려 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감성적인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는 풀꽃세상은 1999년 1월 발족 이후 골목길, 새만금, 백합, 지렁이, 자전거 등 사람이 아닌 물체에 풀꽃상을 수여해오고 있다.

### 대체에너지 국제 심포지움

영남대 청정기술연구소 대체에너지기술정보센터는 지난 10월 10일 오후 경북테크노파크에서 독일 베스터팔렌 주의 에너지·건설·교통부 차관 및 공무원, 기업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체에너지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베스터팔렌 주는 독일의 심장부이며 대체에너지 기술 및 기업을 가장 많이 확보한 지역이다. 대체에너지 정보센터는 이번 심포지움이 지역혁신 클러스트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흥환경운동연합 토론회 개최예정

시흥환경운동연합과 시흥환경기술센터는 지난 10월 7일 오후 2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시화·반월공단의 환경개선과 관련, 민·관·학·산의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화·반월공단내의 대기오염 배출 업체 가운데 TMS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업체들과 함께 환경단체, 시민, 행정기관, 전문연구소 등이 공동 참여해 대기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상호 파트너쉽(동반자)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 세명대 친환경디자인센터 개소식

세명대학교(총장 염재선)는 친환경연구 개발에 필요한 첨단장비와 시설과 전문인력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친환경 관련 신기술 개발에 앞장서기로 했다.

세명대 친환경디자인센터(센터장 도화용)는 지난 10월 10월 2일 세명대학교 디자인학관 세미나실에서 개소식을 갖고 자연 친화적 환경을 유지 발전 업무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6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디자인혁신센터(DIC)를 유치하여 선정됨에 따라 170평 공간에 연구원들의 기획·연구에 필요한 디자인 스튜디오 및 세미나실, 염색실, 시제품 제작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고가의 첨단 장비와 시설을 활용하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의 디자인 개발과 친환경소재 제품 생산으로 생산성 향상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 대한LPG산업환경협회 출범



사단법인 대한LPG산업환경협회(회장 정진성)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협회사무실에서 창립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창립행사에는 광결호 환경부 차관, 서왕진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복규 전국교통단체총연합회 회장, 신준상 LG-Caltex가스 사장, 신현철 SK가스 사장 등 환경부, 환경시민단체 및 LPG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 어린이 환경교육 실시

아이리브 나주운동의 일환으로 LG화학 나주공장은 나주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 45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방재센터와 폐수처리장, 시설물과 최첨단 시설 등 환경관리 현황을 견학시켰다.

### 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 제주도지부 창립

제주도의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오염 방지와 개선을 통해 청정 제주 바다를 새롭게 가꿀 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 제주도지부가 지난 9월 27일 제주시 레포즈공원에서 회원 등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갖고 출범했다.

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 도지부(지부장 정오준)는 창립대회에 이어 제주방어사령부 폭발물 처리반, 제주도내 학교민간 스쿠버 동호인 등 170여명과 함께 용담포구 해안가와 수중에서 정화 작업을 벌였다.

또 이날 제1회 해양 사진촬영대회도 갖고 바다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해양환경 요인들에 대해 계몽활동을 벌였다.

### 인천의제21 우수실천사업 대상 수상

인천시는 "인천의제21"이 발표한 "해양실태-에너지학습관 운영" 실천사업이 제5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 우수실천사업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최근 밝혔다. ◀

## 환경오염방지 신기술발표회 및 환경정책설명회

- 11월 20일(목) 삼성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센터 320호 - \*48페이지 참조